

## <역사의 현장>

### 근현대 역사 복원 현장 : 경교장 개관 의의와 역사 속 이야기

김수정(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조사연구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하면 지상 10층의 초현대식 병원 건물과 바짝 붙어 서있는 2층짜리 단아한 근대식 건물과 마주하게 된다. 높이 솟은 건물들에 포위당해 더 한층 작아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1945년 광복을 맞아 중국에서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 활동을 전개한 역사의 현장, 경교장(京橋莊)이다.



▲ 병원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경교장

2013년 3월 2일, 경교장이 약 3년간의 원형복원 공사와 전시를 마치고 임시정부 청사 당시 모습으로 국민들 곁에 돌아왔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주석 김구(金九, 1876~1949)가 이곳에서 서거한 후 외국 대사관(저)과 병원 등으로 사용되며 대대적으로 변형, 훼손되어 온 지 실로 64년만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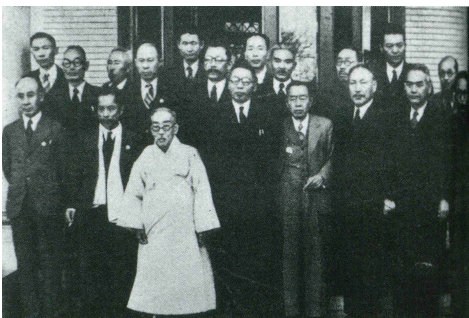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복원과 개관을 맞아 경교장의 역사적 성격, 훼손 및 복원과정, 그리고 이번 복원이 갖는 의미와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

오늘날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분출된 민족의 독립의지를 민족 대표자들이 한데 결집하여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이다.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여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했고,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경교장은 바로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5년 환국 후 입주하여 정식 정부 수립을 위한 과도정부 수립 시까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위원회(國務委員會)를 수차례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정세 변화에 대응해 활동해나간 실질적인 ‘정부 청사’였다. 그리고 주석 김구를 비롯한 각료들이 거주하는 거소(居所)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다.



▲ 1945년 12월 6일 제2차 국무위원회를 마치고 경교장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한 임시정부 요인들



(서울신문 1945년 12월 11일자) 議會抽領府政時臨는하議討을針方本根一統

▲ 1945년 12월 10일 경교장 2층 응접실에서 개최된 국무위원회 사진 (1945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상하이

나 충청 등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알면서도, 국내에 있는 경교장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1945년 광복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조국으로 환국(還國)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연합국들에게서 정식 정부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11월 23일과 12월 1일 1, 2진으로 나누어 환국한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을 비롯한 요인들 스스로도 그랬고, 우리 국민, 각 정당·사회단체, 언론도 모두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정부의 환국’으로 인식하고 환영하였다. 따라서 연합국이나 미 군정의 시각에서 보면 요인 개인 자격의 귀국이었으나, 우리 민족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환국이었던 것이다.

환국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봉영회’를 통해 광산부자 최창학(1891~1959)으로부터 무상 사용토록 제공받은 경교장을 중심으로, ‘통일된 독립자주의 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활동했다.

경교장이 임시정부 청사였던 만큼 이곳에서는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위원회(國務委員會)’가 최소 8차례 이상 개최되었던 사실이 당시 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1945년 12월 3일 개최된 환국 후 첫 국무위원회에는 이승만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는 환국 이후 다각도로 수집된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건국과정에서의 임시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남북통일운동의 산실



▲ 경교장에서의 반탁 집회(1946년 1월)

이후 경교장은 해방공간에서 우리민족의 진정한 독립자주와 통일 정부 수립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남북협상의 산실이 되었다.

카이로회담에서 선언된 한반도 독립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즉각적 독립이 아닌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결의되었다는 사실이 1945년 12월 28일 국내에 전해지자 당일 밤 경교장에서는 긴급 국무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주석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여기고 경교장을 무대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탁운

동은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신탁통치안이 폐기되기까지 경교장을 주무대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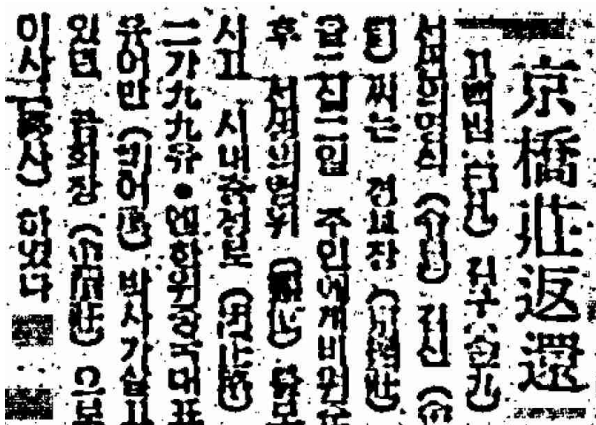
1947년 9월 미국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UN에 이관되고 UN총회는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결의하였다. 북한에서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입경이 거부되고 남한에서도 1947년 정읍발언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 주장을 공식화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정파가 우세해지면서 결국 1948년 2월 UN 소총회에서도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결의되자 ‘임시정부의 문지기’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하고, 1948년 4월 19일~4월 30일 북한에서 개최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가하였다.

비록 남북협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김구는 북한에서 돌아온 후에도 단정 반대세력을 규합, 5·10 총선 참여를 거부하고 경교장을 무대로 통일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1949년 6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소위이자 주한미군 방첩대 요원인 안두희의 흉탄에 의해 2층 집무실 남쪽 창가에서 암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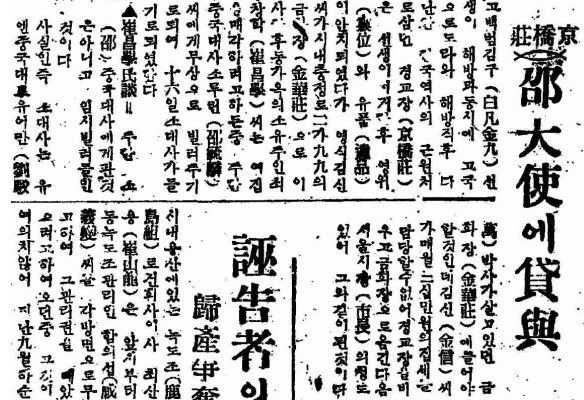


▲ 1948년 4월 19일 남북협상을 위해 북행하는 김구





▲김구의 후손이 1949년 8월 22일 경교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사실이 보도된 당시 신문기사 (1949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최창학 인터뷰를 통해 경교장이 초대 중화민국 대사 소옥린에게 무상 대여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기사 (1949년 11월 16일자 조선일보)

김구의 서거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이자 김구의 거소였던 경교장은 큰 부침을 겪게 되었다. 서거 약 두 달 뒤인 1949년 8월 22일 김구의 유족은 건물 소유자인 최창학의 요구로 경교장을 떠나야만 했다.

최창학은 유족을 내보낸 지 3개월 뒤인 1949년 11월,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자 미국 다음 가는 우리나라의 외교 상대국이었던 중화민국(일명 타이완) 정부의 초대 주한대사인 소옥린(邵毓麟)에게 다시 경교장을 무상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1950년~1953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미군 특수부대 주둔지로 사용토록 한다. 이후 1956년~1967년에는 월남대사관으로 사용되어진다. 이 시기까지 경교장은 비록 용도는 임시정부와 동떨어지게 활용되고, 외부 창 의 일부와 1층 귀빈식당 내부가 다소 변형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임시정부 사용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오늘날 강북삼성병원의 전신인 고려병원에서 최창학 후손으로부터 경교장을 비롯한 일대 토지를 병원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함으로써 경교장은 내외부가 결정적으로 훼손되어지게 된다.

고려병원은 경교장 후면 벽체를 터서 그 뒤쪽에 신축하는 7층 건물과 연결하고 내부를 완전히 병원으로 리모델링해 1968년 개원하게 된다. 1996년에는 강북삼성병원이 대규모 확장 계획을 세우면서 그나마 남은 경교장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계획되기도 했다. 다행히 1997년 3월 25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원위치 보존을 결정함으로써 경교장은 현위치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2004년 종로구에서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허가한 강북삼성병원의 증축공사로 경교장의 경관은 다시 한번 더 악화되어지게 되었다.



▲ 1967년 고려병원 신축을 위해 경교장 후면이 변형되어지고 있는 모습



▲ 1967년 고려병원 신축을 위해 정면과 내부가 리모델링 되고 있는 모습

## 64년만에 임시정부 청사로 다시 돌아오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나 사유재산화되어 훼손되고 있던 경교장의 보존, 복원은 매우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졌다.



▲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교장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도된 1982년 7월 12일자 경향신문

김구 주석 서거 이후 경교장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김구 암살의 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과 반탁 및 통일운동을 재조명하기 시작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러한 사건들의 무대인 경교장을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면 문화재 지정이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민사회에서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시민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당시에는 근대유산들을 문화재로서 수용함에 있어서 국민 인식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9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 청사, 국도극장 등 근대건축물들이 연달아 국가와 개인들에 의해 철거되면서 2000년도에 근대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2001년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고 그 전후로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근대유산들에 대해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이 검토되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경교장은 2001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2005년에는 다시 국가 사적 제465호로 승격되어 제도적 보존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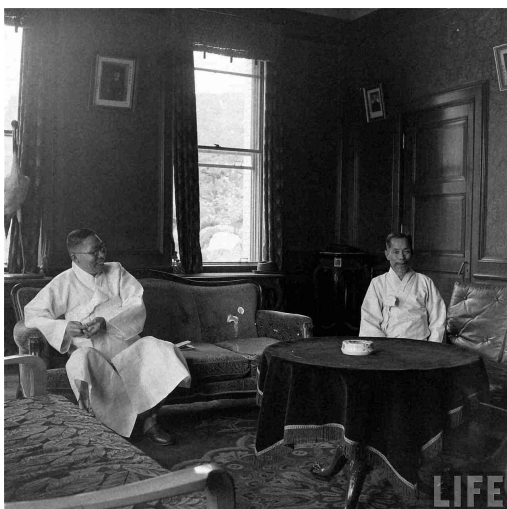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경교장 복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복원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단계로 2005년 사적 지정과 거의 동시에 경교장 2층 김구 주석의 집무공간이자 서거장소(67.7㎡)가 부분적으로 재현되었다. 2003~2005년 서울시와 강북삼성병원 간의 긴 협의를 거쳐 강북삼성병원에서 전액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시와 김구기념관에서 고증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7~2008년 경교장 복원에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7년 광복회에서 경교장 전체 복원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2008년 서울시에서 경교장을 비롯해 초대정부의 출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무대가 된 역대 정부수반유적 총 6개소에 대한 종합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경교장도 전체 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했다. 3년에 걸친 지속적인 이해, 설득과정을 거쳐 삼성생명과 강북삼성병원은 2009년 경교장 건물 전체를 서울시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1년간의 병원시설 이전과정을 거쳐 2010년 6월 30일 서울시에게 관리권을 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경교장의 복원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교장이 김구 개인 거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라는 시각에서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종료 시점이 학계에서 분명히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1949년 11월 23일 환국 이후 최소한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 개최와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조직 시까지는 임시정부로서 활동한 사실이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이후로도 임시정부의 수호자인 김구가 계속 거주하며 임정의 정신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사실이 학계 다수에 의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교장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 당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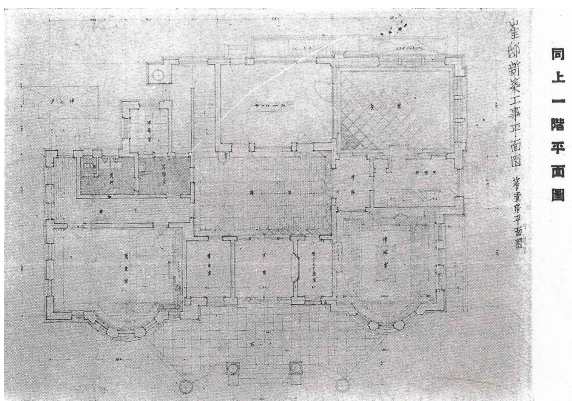
▲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한창 진행되던 때 경교장 1층 귀빈응접실에서 포즈를 취한 김구와 조완구



모습으로 내외부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원칙 하에서 사료조사와 증언 청취, 그리고 건물 자체 조사를 통해 임시정부 당시 각 실의 평면과 용도를 규명하고, 그 장소들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 인물들의 활동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임시정부 사용 당시 경교장에는 1층에 첫 국무위원회가 개최되고 국내외 중요인사 면담과 언론 브리핑이 이루어지던 귀빈응접실, 임시정부 1·2진이 환국 후 감격스런 첫 만찬을 함께 한 귀빈식당, 오늘날 대변인에 해당하는 선전부 사무공간 등이 있었던 사실이, 2층에는 환국 후 김구 주석과 국내 4당 당수회담이 열리고 제4차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열린 서재 겸 응접실, 임시정부의 정부수반인 주석 김구의 집무실과 침실,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가 배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하층은 부엌 겸 식당, 보일러실 등의 부속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또 1938년 발간된 『朝鮮と建築 [조선과 건축]』와 LIFE지 등 당시 잡지들에 실린 건축 평면도와 사진들을 통해 신탁통치 반대운동,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당시, 그리고 김구 주석 서거 당시의 경교장 외부와 내부의 주요 실(室)들의 세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朝鮮と建築』에 실린 경교장 1층 평면도



▲ 해체과정 중 드러난 경교장 원래 천장을 보존처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한국사, 건축사 등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로 구성된 경교장 복원자문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자문을 거쳐 임시정부의 주요 공간이 배치되고, 내부 원형이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는 1층과 2층은 임시정부 각 실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재현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부속시설이 있던 장소로서 내부 모습에 대한 고증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지하의 경우 구조와 평면은 원형대로 복원하되 경교장이 어떤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공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입각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였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진행된 복원공사는 이렇게 발굴된 사료들에 기반하고 기존 병원시설 해체 과정 중 발견된 경교장의 원래 천정 몰당이나 조적벽체, 계단, 바닥 등을 그대로 살려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되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물 복원과 병행하여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가구와 커튼 등도 최대한 원래의 색깔과 재질에 충실하게 제작하여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지하에는 3개의 전시실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경교장의 역사적 가치와 경교장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정치적 활동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교장과 직접적 관련을 갖는 유물을 전시하고 패널과 영상 등을 배치하였다.



▲ 첫 국무위원회가 개최된 1층 응접실의 복원된 모습



▲ 1진과 2진이 27년만에 환국해 고국에서 첫 저녁식사를 함께 한 1층 귀빈식당의 복원된 모습



▲ 김구 주석 2층 집무실의 복원된 모습



▲ 김구 혈의(복제유물) 등 서거 당시 유물이 전시된 지하 제1전시실

### 복원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상하이, 충칭, 류저우 등 먼저 이루어진 중국 내 청사 복원에 이어 이제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공간인 경교장까지 복원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발자취들의 복원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복원으로 경교장 복원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건물 전체를 복원했지만 강북삼성병원의 응급실·수술실·원무과 등 주요시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교장 북쪽과 서쪽 창들은 이번에도 원형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쪽 정문, 반탁운동 집회와 남북협상 추진 당시 국민들이 몰려들었던 정원, 동쪽 출입문과 연못, 다리 등은 아직도 강북삼성병원의 출입문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공간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을 때 경교장 복원은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층 홀에 전시된 경교장 원형 모형은 경교장의 과거모습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복원된 경교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경교장의 원래 모습을 형상화 한 모형이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를 관람하고 경교장을 나서면서 보게 되는 강북삼성병원의 주차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경교장 전체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한 장치이다.

강북삼성병원이 이곳에 자리한 것도 벌써 46년이 되었다. 병원시설은 연차로 증축되어 경교장을 빙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환자와 차량들이 경교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경교장 전체 복원의 과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터를 닦고 자리잡은 강북삼성병원, 나아가 삼성의 결

단만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인 헌법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규정한 국가와 중앙정부가 그 정통성의 바른 정립과 보존 차원에서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였던 경교장의 완전한 원형 회복에 나서야 한다.